

이달의 남도 전통주 담양 추성고를 ‘티나’

딸기·죽력 원료 고급 혼성주...풍부한 맛과 향 일품

전남도는 담양의 신선한 딸기와 명품 대나무에서 나온 죽력을 원료로 만든 고급 리큐르주 담양 추성고를 ‘티나(TINA·사진)’를 11월 대표 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풍부한 딸기향과 맛이 특징으로 탄산수와 얼음 등을 활용해 각데일로 즐기면 달콤한 향의 여운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병 하단부에는 엘이디(LED) 조명이 부착돼 중후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야광봉, 미러볼 등 활용하기 좋은 아이টে를 함께 구성한 ‘홀파티 상품’도 있어 어떤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전통주에 거부감이 없는 과일맛을 접목하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엠지(MZ) 세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담양 추성고의 ‘티나’는 양대수 대한민국 식품명인(추성주·죽력고)이 출사한 젊은 감각의 전통주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티나’는 2019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주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성고에서는 티나 외에도 시원한 하늘색이 특징인 멜론과 코코넛 맛 ‘르



깔품’, 산뜻한 산호빛의 백향과 맛 ‘미스 반달’ 등 전통주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성고올은 전남의 우수한 전통주를 새롭게 해석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전통주 전문 유통업체와 상담회, 역량 강화 교육, 디자인 제품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전남 전통주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나’는 추성고를 판매장(담양군 용면 추령로 29, 061-383-3011)에서 750ml 1병 기준 4만3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농업박물관, ‘연 날리기’ 관광 콘텐츠화

3일 영산호관광지 경연·액막이 행사·전통연 전시

전남도농업박물관은 3일 영산호관광지 농업테마공원에서 전통 민속놀이 활성화를 위한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대회는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와 계승 발전은 물론, 연날리기를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날리기 대회는 식전행사, 개막행사, 본 행사, 부대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 전국의 전통 연 연구가를 초청해 줄연과 단독 연 등 10여종의 창작 연을 선보인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올해의 나쁜 액운을 보내고 다가올 새해의 복을 맞이하는 의미로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 쓴 액막이 연 날리기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문구를 연에 달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기원한다.

연날리기 경연은 일반부 연줄 끊기 대회와 학생부 높이 날리기 대회로 치러진다. 일반부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 학생부는 3위까지 도지사 표창과 상



품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이순신 신호 연’을 비롯한 전통 연, ‘호남 연’ 등 100여점의 연을 전시하고 초등학교 대상 연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직접 연을 만들어 날리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은 “연날리기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현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개발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우리 농산물·문화 알린다”...담양농협,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어린이·다문화 가정 등과 문화 체험

담양농협동조합은 30일 “하나로마트(대형) 개점 9주년을 맞아 최근 이틀간 이용 고객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양읍 및 용면·월산면 소재 초등학교(30명) 어린이와 담양 거주 다문화가정(13쌍)도 신청을 받아 복합적으로 체험 행사를 진행해 우리 농산물 홍보와 민족 고유의 김장문화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날 김장체험은 희망자를 사전 접수 받아 체험비 1인당 3만원을 부담하고 김치(7.5kg)와 수육을 제공, 호응을 얻었다.

김법진 담양농협장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로컬푸드 복합매장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담양농협동조합은 최근 하나로마트 개점 9주년을 맞아 이용 고객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담양읍 및 용면·월산면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와 담양 거주 다문화가정도 신청을 받아 우리 농산물과 민족 고유의 김장문화를 알렸다. <담양농협동조합 제공>

전남産 만가닥·팽이버섯 베트남 첫 수출

도농기원, 그린가온 통해 12t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0일 “전남 지역 특화 농식품 확대를 위해 시장 개척에 나서 해남 만가닥버섯(사진)과 나주 팽이버섯 12톤(t)을 베트남에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농업기술원의 ‘수출용 프리미엄 버섯생산 기반조성 지원’을 받은 해남 농업회사법인 ㈜수원에서 생산한 만가닥버섯 1.1t(540만원)과 나주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팽이버섯 11t(1천600만원)으로 수출 전문업체인 ㈜그린가온을 통해 이뤄졌다.

해남 만가닥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육질이 치밀하고 단단해 냉장에서 30일



가량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나주 팽이버섯 또한 품질이 우수해 미국 소비자는 물론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높아 향후 전남의 대표 수출 신선농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 수안농장은 연 1천t의 만가닥버섯을 생산,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11차에 걸쳐 19t(9천500만원)을 수출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219억 지급

전남도는 30일 “논이모작을 재배하는 2만3천농가, 4만3천ha에 직불금 21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업량 8만5천ha의 50%를 차지하는 규모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발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논지인 논에 전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대상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한다. 대상은 쌀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사료

작물이며 지급 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 대상자를 확정, 순차적으로 신청농가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밀, 조사료를 심어 내년에 시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하면 1ha당 2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장흥 용두농협, 국무총리상 수상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서 우수기관 선정

농협전남지역본부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주관한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장흥 용두농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흥 용두농협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 선제적 위험관리 노력 등이 국내 자금세탁방지 및 범죄 예

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 내실화 유도를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해 대통령,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백찬인 용두농협 조합장은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 되고 있고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체계적인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농협전남본부장은 “자금세탁방지 우수 금융기관 선정을 축하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4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